매튜 S. 하몬 박사, 성경의 활용, 제1강, 성경의 활용을 연구하는 것의 가치와 시작하는 방법,

BiblicaleLearning.org 후원, 테드 힐데브란트 진행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 S. 하먼 박사입니다.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의 가치와 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는 것의 가치와 시작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매트 하먼 박사이며,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강의의 내용은 제가 게리 스니커와 공동 집필한 책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는 법: 일곱 가지 변함없는 선택』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 흥미를 느끼셨다면, 책을 구입하여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을 활용한 경우까지 포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정의란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초기 성경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성경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는 이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예언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자세히 연구하고 탐구하였다.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해진 이 모든 일들, 곧 천사들도 간절히 바라보는 이 일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을 때, 그들 또한 자세히 연구하고 탐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현재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시하신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반복하시고, 예언자나 후대 성경 저자들이 그 말씀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미를 더 확장하고

설명하도록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한 구절일 뿐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할 때,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후대 구약 저자들이 구약의 앞부분을 인용했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좋은 예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사야 6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환상을 본 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계속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하라."

계속 보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무겁게 하며 눈을 멀게 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치유받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다.

그리고 굵게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신명기 29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 눈앞에서 보았다. 너희 눈으로 본 그 큰 시련과 표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달을 마음도, 볼 눈도, 들을 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그 표현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후대의 저자가 구약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을 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저자들이 이전의 구약 성경 구절을 활용한 수많은 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살펴보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한 예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기초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것인가?' 또는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인가?'라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네 가까이에, 네 입에,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 우리가 듣고 행하게 하겠느냐?"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주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여러분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자신의 논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라고 말한 다음,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즉, 그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상호작용하고, 해석하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수많은 예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엇인지, 즉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단지 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일 뿐이고, 일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성경 해석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다른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지 못하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경 신학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경 신학이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제와 약속, 언약, 인물들을 추적하여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초기 성경 본문과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성경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즉 그들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고 암시하며 상호작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시하신 것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 사이의 관계를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서 신학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것이 조직신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특정한 범주와 주제를 바탕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려는 성경 연구를 의미합니다
.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본문을 모아서 종합하여 요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창조된 세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조직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범주들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성경 저자가 초기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면, 서로 동떨어져 보이는 본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맥락으로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측면일 텐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레위기와 베드로전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여러 율법과 규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그 구절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종류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왜 우리가 "내가 나가서 이 특정한 제물을 바쳐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활용하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똑같은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레위기 11장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레위기와 베드로전서 사이에 변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해석학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해석학은 해석의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텍스트에 접근해야 할까요?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제 또는 가정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출발점이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석이나 다른 자료를 읽어보면, 그들은 같은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정말 같은 구절을 읽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대개 출발점이나 전제, 혹은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는 분명히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셨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즉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경에 접근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초자연적인 영역도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전제와 출발점들이 우리가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때, 그것은 성경의 활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약과 신약 소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어떤 책이 다른 책보다 먼저 쓰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연구하는 경우라면, 이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예를 들어 예언서 등을 연구할 때는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때로는 예언자가 언제 이 글을 썼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가 요엘서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매우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책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이전에, 아주 초기에 쓰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 글은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돌아온 후, 또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시기, 혹은 그 중간 시기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 다른 구약 예언자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때, 요엘이 이사야를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가 요엘을 인용한 것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구약 예언자를 인용하는 경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신명기에서 발견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계의 비판적 논쟁이 불거질 수 있죠. 비판적 학자들은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고대 근동과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예를 들어 잠언을 읽어보면 다른 고대 근동 지혜서에도 유사한 속담 같은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저자는 그러한 것들에서 차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지혜의 원리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고, 어떻게 씨름해야 할까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는 일반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다른 유대인 저자들이 자신들이 해석하고 있는 구약 본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직접 차용한 것보다 유대인 저자들의 해석을 더 직접적으로 차용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구약 본문과 관련된 해석 전통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필로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비슷한 맥락 속에 살았던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신약성경에서도 고려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구약성경의 일부가 아람어로 쓰였기 때문에 아람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연구할 때 이미 언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일부는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더 복잡한 점은 신약 성경 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종종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리스어 번역본들이 히브리어 구약 원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구약 책들은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매우 신중하게(여기서 '신중하게'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마치 현대 번역본이 해당 구약 책의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에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칠십인역 성경 중에는 신미국표준성경(NASB)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충실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 방식은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영어 단어와 정확히 일치시키려는 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영어로 읽을 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는 반면, 신생활번역(NLT)처럼 좀 더 역동적인 번역을 시도한 책들도 있습니다. 이 번역 방식은 원문의 정확한 표현에 얽매이기보다는 구절과 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마치 현대 영어 구약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은 신미국표준역(NASB)이고, 어떤 책은 영어표준역(ESV)이고, 또 어떤 책은 새생활번역(NLT)인데, 번역의 질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 모든 게 복잡한데, 본문 비평이라는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나 70인역, 심지어 신약성경 그리스어 원문의 원래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재구성하려는 거죠. 어떤 필사자가 누가복음 저자가 구약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단어를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것 같은데, 특정 구절이나 단어를 생략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를 도와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단어를 삽입해서 구약 성경 본문의 내용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이 연구할 때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을 겁먹게 한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맙소사,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구절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문적이고 매우 상세한 연구도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경 독자가 반드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학자들이 원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발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렸으니 책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성경 자체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구약과 신약을 위한 일곱 가지 해석학적 선택'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해석학적 쟁점들이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신학대학원 교재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유익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어와의 상호작용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물론 영어 텍스트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일곱 가지 해석학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일곱 가지 해석학적 선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격리된 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지를 제시할 때 표현 방식을 보면, 우리는 이것과 저것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장을 진행하면서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잠시 후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결된 접근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들은 이것과 저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가능한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격리와 연결이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한쪽은 구약이 구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고, 다른 한쪽은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연구와 논의, 그리고 학문적 행보를 이어갑니다. 또 다른 한쪽은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는 학자들로, 이들 역시 독자적인 연구와 학문적 행보를 보입니다. 이들은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드물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다가 결국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저자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만, 신약 저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더 큰 현상의 일부로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포착하기 위해 '성경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다루는 방식은 사실상 구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 앞부분의 본문을 다루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저자들이 앞부분의 성경을 다루었던 방식과 상당 부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함께 이해하면, 성경의 통일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일관되고 폭넓은 해석학적 접근 방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선택은 분리된 해석과 연결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나 맥락을 조정하는 것과 계시를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첫 번째 것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대의 성경 저자를 접할 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신약성경을 읽다가 "아, 저 저자가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구약성경 구절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찾아보면, "이 구절의 가장 명확한 의미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마태, 누가,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본문의 의미를 수정하거나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문맥을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후대의 성경 저자를 통해 이전 성경을 해석하면서 원래 저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신 것일까요? 그 의미가 원문에도 분명히 담겨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의 핵심 질문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이 분야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저자, 예를 들어 구약 구절의 의도와, 후에 신약 저자가 나타나서 이 구약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구약 구절의 인간 저자도 그러한 의미를 인지했을까요? 그리고 신적 저자성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구절에 담긴 신적인 의도와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이 장에서 다뤄집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 과학의 관점에서 착시 현상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에서 착시 현상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떤 접근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수가 일정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이건 의미가 없어"라고 치부해 버리죠.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거의 자유 연상에 가까워서, "이건 뭔가 떠오르게 하네" 라고 생각하고 빈칸을 채우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양자택일 대신 둘 다 가능하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훌륭하고 견고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깊이 몰입함으로써 얻는 올바른 감수성과 성향이 본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 예술과 과학으로서의 환상 감지입니다. 네 번째는 수평적 맥락과 수직적 맥락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 유형의 맥락 모두 중요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수평적 맥락은 원문과 후속 텍스트 모두에서 주변 문장, 단락, 장을 의미합니다.

수직적 맥락이란 성경 저자가 이전 문헌을 사용할 때 의미가 축적되는 방식을 말하며,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성경적 관계와 비성경적 관계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 자체 외부에 있는 책이나 글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이것은 고대 근동, 즉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문헌입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분석 과정에 반영해야 할까요? 여섯째, 과거 지향적 유형론과 미래 지향적 유형론의 차이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 성경 자체에도 두 가지 유형의 유형론이 모두 존재합니다. 유형론에 대한 정의는 해당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택입니다. 역사적 해석과 역사적• 인물론적 해석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인물론적 해석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

이는 후대의 성경 저자가 이전 저자가 말한 내용을 가져와 다른 화자의 시점으로 옮겨 적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생각만큼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서처럼 시편에 나오는 왕의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물 론적 ' 이라는 용어에서 ' 프로 소포스' 는 그리스어로 '얼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 따라서 이 용어의 핵심은 화자의 얼굴이 그 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다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써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정의를 통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암시입니다. 이 분야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학자들이 이러한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능한 한 가장 포괄적인 범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용문에는 명확하게 쓰여진 인용문과 이전 텍스트에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독자를 이전 텍스트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단 한두 단어만 사용된 아주 미묘한 참조까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암시는 저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여러분의 관심을 그 연관성에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향력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니, 화면 왼쪽부터 보시면 인용문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인용문은 흔히 "기록된 바와 같이" 또는 "이사야가 말했듯이"와 같은 서두 문구로 시작됩니다.

명확하고, 어휘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 옆에는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더라도 구약 성경 구절에서 몇몇 단어를 빌려와서 저자가 독자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암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메아리'라고 부르는 것까지 따져보면, 어휘에서 아주 희미한 유사점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단어 하나 정도, 혹은 아주 미미해서 솔직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말이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토론을 통해 "나는 그 구약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나는 그 구절을 근거로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주제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본문과 후대 구약 성경 본문 사이에 명시적으로 공유된 언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주제를 유사한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는 비록 정확히 같은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독자가 이전 구약 구절을 떠올리도록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활용했을지 보여주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해석적 암시'인데, 이는 원문, 수용문, 그리고 해석적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증문은 인용되는 본문, 즉 원문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에서 이사야 6장이 신명기 29장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신명기 29장이 바로 원문의 내용과 사상을 제공하는 기증문입니다. 그리고 수용문은 그 이전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은 수용 본문으로서, 신명기 29장의 표현과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학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수용 본문 안에서 원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즉 후대의 본문이 원 구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문학적 효과를 위해 단어를 차용한 것이 아닙니다. 후대의 텍스트가 원문을 해석하거나 그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해석적 움직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저희 연구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작품을 암시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원어를 모르는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상호 참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는 이러한 상호 참조가 아주 유용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읽다가 어떤 구절을 보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상호 참조를 활용하여 그 구절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그 상호 참조가 단순히 개념적인 유사성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절은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구절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와 같은 식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암시는 아닙니다.

두 글이 비슷한 개념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 흥미롭네. 후대의 저자가 이 글을 언급하고 암시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추천해 드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Connecting Scripture New Testament'라는 도구입니다. Connecting Scripture New Testament는 바로 그런 도구입니다.

이 자료는 기독교 표준 성경(Christian Standard Bible) 번역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자료의 독특한 점은 본문에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인용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읽으면서 "아, 이건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호 참조 부분에서는 해당 구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여기 상호 참조 부분의 성경 구절도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본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상호 참조 부분의 성경 구절도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하단에 있는 연구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특정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성경 저자가 구약 구절을 언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단락으로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는 두 가지 색인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신약 성경 색인이 있어서 신약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구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책 뒷부분에 있는 구약 성경 색인이 훨씬 더 유용한 자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절을 읽고 있다면, 여기에는 신약 성경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약 성경 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4장 같은 구절을 읽다가, 신약 성경에 창세기 44장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신약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신약 성경 저자가 그 구절이나 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이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깊이 있게 읽는 법을 배우세요.

때때로 우리는 성경 구절을 너무 빨리 읽다 보면 속도를 늦추고 구절의 의미나 이미지, 상징, 언어적 표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 즉 독자의 주의를 끌어 "잠깐만, 천천히 읽어 보세요. 이것은 앞부분의 본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표현을 놓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폭넓게 읽는 법을 배우다 보면, 모든 단어와 구절의 세부적인 내용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큰 연결고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평적 맥락과 수직적 맥락을 연구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전에는 미처気づ지 못했던 성경 속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의 가치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